

# 광주전남연구원 ‘신해양수도 건설·국제행사 유치’ 중점

### ‘싱크 탱크’ 내년 주요 정책과제 결정...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정책 등 연구 백운 지하철도 설치·일신방직 부지 개발 등 빠져 민감 현안 소외 지적도

전남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메가 이벤트를 어떻게 유치해야 할까. 전남지역 고교 졸업자들의 채용을 늘리고 광주 청년들이 부담하고 있는 빚은 얼마나 될까. 광주전남연구원이 추진할 내년도 주요 정책과제(싱크 탱크)인 연구원의 주요 정책연구 과제를 들여다보면 광주와 전남도가 내년 추진할 현안의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연구원이 추진 중인 연구과제는 기획·정책과제와 현안 연구로 나뉘는데, 광주·전남 미래 발전을 견인

과 관련된 연구원 주도의 연구 진행 계획은 담겨 있지 않아 적극적으로 현안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구원이 그동안 현장과 괴리된 정책 제안에 머물거나 사·도 현안사업에만 매몰되면서 종속됐다 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지역민 기대에 부응할 연구가 진행될 지도 관심이 쏠린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연구원은 최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내년도 진행할 중점 연구과제를 확정, 의결했다. 연구원이 추진할 연구과제는 기획·정책과제와 현안 연구로 나뉘는데, 광주·전남 미래 발전을 견인

하기 위해 4명 이상 연구진이 참여하는 융·복합 연구로는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 수도 전남 건설을 위한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전남도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전략 등을 짰다. 광주시가 융·복합 연구를 요구했던 백운광장 지하철도 설치나 전남·일신방직부지 개발, 복합소방물 유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 광주시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아 자칫 타당성에 그칠 우려 등을 감안해 광주시 태스크 포스에 참여하는 형태로 연구를 지원한다는 게 연구원 방침이다. 신해양수도 건설은 민선 8기 전남도정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수도권 중심 구조에서 변방에 머물렀던 예전과 달리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통한 대한민국 중심으로 도약하겠다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공간적 특수성을 살린 남해안 우주

산업 벨트, 천혜의 관광·해양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등을 연결해 전남·광주, 전북·제주와 부산·울산·경남이 함께하는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과 맞닿아있는 연구다. 시·도 정책 개발과 관련된 연구로는 ▲신산업 발굴·육성 및 지역일자리 창출 연구 ▲살기좋은 광주 여건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 연구 ▲농·수·산 분야 지역경제력 제고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 ▲지역 문화·관광 자원의 융·복합적 활용 연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광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방안 ▲광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전남 고교 졸업자 고용 촉진 대책 ▲광주 청년부채실태조사 ▲전남지역 섬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문제점 연구 ▲국가 지정 탄소중립도시 선정 연구 ▲장목습지생태관 컨테이너구

상 ▲광주지역에 특화된 문화콘텐츠 저변 확대 방안 연구 등이 이뤄진다. 연구원 한 명당 1개 연구를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뤄지는 정책 연구의 경우 내년 2월 광주시와 전남도의 실·국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현안을 발굴, 전체 연구원(38명)들이 모두 참여하는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구원은 또 수시로 발생하는 사·도 현안에 대한 정책방향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현안 연구, 정부 정책에 대응한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는 수탁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연구원이 올해 수탁 과제로 진행중인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추진 전략의 경우 이달 말 완료되며 광주·전남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내년 3월 공개된다. /김지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 생활지원금 미수령가구 전수조사

### 시, 연락 두절 등 119가구 안부 확인 등 맞춤형 서비스

광주시에 생활지원금 미수령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수령 하지 않은 600가구를 점검한 결과, 사망과 장기입원, 교정시설 수감 등 불가피한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본인이 상담을 거부한 119가구를 확인하고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광주시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75가구를 찾아내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지원·민간서비스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연락이 닿지 않은 36가구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통보해 사실조사를 한 뒤 추후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방문상담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상담 거부자와 장기 부재자 등 8가구에 대해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중심으로 주변인의 협조를 받아

지속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복지 상담을 이어가기로 했다. 또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대면상담을 하지 못한 36가구는 주민등록사실·실거주지 불일치 취약계층 조사명단으로 중앙부처에 통보하고, 추후 실거주지 정보 등 사실조사 결과를 공유 받아 위기가구 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을 추가 검토해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조사 대상자의 사후 관리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위기가구 발굴단, 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을 활성화해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광주시는 올 들어 10월 말까지 각 동별로 구성된 위기가구 발굴단(5026명)에서 발굴·신고한 803가구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사례관리 등 공적 서비스와 민간 후원 연계, 집수리 등 민간 서비스를 1323건 지원한 바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는 20일 오전 동구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2023년 9월 목표로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철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장, 강기정 광주시장, 남태한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광주시 제공)

## 무등산 정상 내년 9월부터 상시 개방

### 광주시·공군·국립공원공단 협약...56년만에 완전한 ‘시민 품으로’

56년간 통제됐던 광주 무등산 정상이 내년 9월부터 상시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 국립공원공단은 20일 오전 동구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박종철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장, 남태한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이 참석해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 협약서에 대표 서명했다. 협약서에는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을 위한 역할 분담 ▲세부적인 운영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상시 개방 탐방로 설치 등에 대한 행정 지원과 상호협력 등을 담고 있다. 협약 기관은 2023년 2월 상시 개방 탐방로의 국

립공원계획 변경을 시작으로, 국가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군부대 철책 이설, 탐방로 설치 등을 마치고, 오는 2023년 9월 무등산 정상을 시민에게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10월 강 시장의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 선언 이후 내년 9월 정상 상시 개방을 위한 세부절차 이행을 위한 공식 협약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앞서 광주시는 1966년 무등산 정상 군부대 주둔 이후 군 당국과 협의해 지난 2011년부터 무등산 정상을 이벤트성으로 일시 개방한 바 있다. 지난 10월까지 총 25차례 무등산 개방 행사를 진행했고, 47만5000명이 넘는 탐방객이 무등산 정상을 밟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양성평등 슬로건’

### 표절 의혹에 재심사 돌입

전남도가 공모를 거쳐 수상작으로 선정한 ‘양성평등 슬로건’에 제기된 표절 의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적 문제와 별개로 작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표절 의혹을 둘러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모전의 신뢰성을 훼손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양성평등 슬로건 및 정책 공모전’을 통해 우수작으로 선정해 공개한 22개 슬로건 중 4개가 다른 기관 등에서 사용중인 것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재심사에 들어갔다. 여러 법률 전문가에게 법리 해석 등을 자문한 결과, 해당 슬로건의 경우 ‘저작권과 상표권 표절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지만 의혹이 불거진 만큼 해당 작품들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판단키로 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김지를 기자 dok2000@

## 김영록 지사 ‘우리밀 활용’ 구례 현장 방문

김영록 전남지사가 20일 우리밀을 원료로 가공 식품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구례 광의면특농산물단지우리밀가공공장영농조합인과 목월방집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했다. 우리밀가공공장영농조합인은 1992년 건립해 31년째 운영 중이다. 영농조합은 구례 156농가와 계약재배를 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 밀도 수매해 연간 1200t 분량을 밀쌀, 밀가루, 면, 건빵 등으로 가공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보다 약 55% 증가한 연 46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우리밀 재배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국산밀 우수 생산단

지 우수상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특별상을 받기도 했다. 2016년 구례읍에 문을 연 목월방집은 우리밀 등 100% 국산 원료를 활용한 목월팔방, 수제현제빵, 흑밀 덩어리빵 등 70여 종을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 구례의 농산물을 접목해 지역 식문화가 담긴 빵을 만들어 구례를 방문하면 꼭 먹어야 하는 지역 대표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어르신 등 지역 주민 25명을 고용해 지역 사회와의 상생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현장방문을 통해 식량안보와 친환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우리밀 산업 육성정책을 구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2023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모집

www.kwangshin.ac.kr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학과	모집인원
인문사회	신학과	23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10
사범	유아교육과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6
총계		44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교사로(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2. 12. 29(목) ~ 2023. 1. 2(월)  
 · 전형일: 2023. 1. 9(월)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성경연구학과(Th.M.)	○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
		목회학과(D.Min.)	○
		유아교육학과(D.Ed.)	○
		코칭심리학과(D.Psy.)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코칭심리학과(M.Psy.)	○
국제대학원	석사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M.A.)	○
		재활심리치료학과(M.A.)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3. 1. 25(수) ~ 2. 3(금)  
 · 전형일: 2023. 2. 6(월)

사랑과 감사의 68년 1954 ~ 2022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